

KASI : 이곳 연구원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이서구 : 지난 해 10월부터 과제 연구원 자격으로 일을 시작했고, 정식 발령 난 건 올 6월입니다. 물론 훨씬 오래 전부터 인연은 있었습니다. 보현산천문대가 건립되고 망원경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던 1996년에 오퍼레이터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첫 인연이었죠.

KASI : 소속된 팀이 천문정보사업팀입니다.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서구 : 얼마 전까지는 천문정보센터 산하 홍보사업팀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홍보팀이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해서 일을 합니다. 반면 저희는 연구원 자체에서 생성된 천문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정보 창구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홍보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팀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대규모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천문학을 알리는 일까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KASI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 하시나요?

이서구 : 하루가 다르게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국민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사가 정해지면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행사용 도시락 하나까지, 행사와 관련된 실무 전반에 걸친 일을 맡고 있습니다.

KASI : 학문 외적인 분야인데, 적성에는 맞으시나요?

이서구 : 오래 전부터 이쪽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모여 'YAM'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던 모임이었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대중 홍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천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천문학이 무엇이고, 그것이 일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죠. 그러나 한창 공부에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정보사업팀 이서구 선임기술원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면서 천문학 대중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ASI :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서구 : 행사장을 구성하는 무대, 조명, 음향, 천막 등을 섭외하고 준비하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건 '사람'입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VIP에 대한 의견 문제부터 해서 참여하는 여러 기관의 사람들과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다섯 차례 정도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KASI : 행사를 끝내고 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서구 :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끝마치는 행사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됐던 못 됐던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그래도 행사를 찾은 아이들이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거나, 행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으면 큰 보람과 함께 자부심을 느낍니다.

KASI :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신지요?

이서구 : 대표적인 행사인 대한민국 별 축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함께 하는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행사 규모도 커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모일 수 있으니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2009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천문의 해>입니다. 천문학이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ASI :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있고, 건립이 진행 중인 지자체 천문대



대중 강연을 통해 천문학과 대중이 보다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이서구 선임기술원.

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서구 : 지자체에서 건립한 천문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간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천문대 수가 많이 늘어나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 연구원이 해야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천문대 건립 기획 단계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ASI : 개인적으로 꼭 진행해보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이서구 : 대중 강연회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크던 작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천문학 강연을 한 번 정도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천문학 교수 중 많은 분들이 학생 시절 선배 천문학자의 강연을 듣고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별 축제와 같은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소규모 강연회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ASI : 앞으로 연구원과 천문학을 널리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